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3. 2. Vol. 9

■ 농정이슈

한·중 FTA 가서명 등

■ 정책브리핑

한·중 FTA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

■ 연구지원

2014년 축종별 등급판정 통계분석 결과

■ 현장여론

겨울철 영농교육 실태와 개선점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한·중 FTA 가서명

- [한중 FTA 가서명, 2.25.]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2014.11.10.) 이후, 제7차 RCEP 협상(2015.2.9.~13., 태국 방콕) 계기 최종협의 마무리, 외교 경로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 교환
 - (농업 분야) △한국...국내 주요 생산 품목(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모두 양허 제외, △중국...품목수 기준 91% 자유화(냉동 고가과실류·채소류 10년 내 개방, 신선육류·과채류 가공품 등 20년 내 개방)
 - (향후 계획) 2015년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한글본·중문본) 정식 서명 추진,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 거쳐 발효될 예정
- 자료 : KBS SBS-YTN(2015.2.25.) / 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조선일보(2015.2.26.) / 농민신문(2015.2.27.)
- 참고 :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중 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2015.2.25.)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서명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정문 정식서명*, 2.26.] 터키 최초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관한 FTA 체결**, △한터키 FTA,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 △우리 기업이 뽑은 유망 신흥시장 터키로 진출 확대 기대
 - ※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 우선 발효(2013.5.1.) → 서비스 및 투자협정 실질타결(2014.7.) → 영문 협정문 가서명(2014.9.18.)
 - ※※ 터키 기체결 FTA는 모두 상품 분야로만 국한
- (서비스 협정) WTO DDA 양허안 넘는 수준의 양허에 합의, 특히 터키측은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문화, 환경 분야 등 18개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
- (투자협정) 非서비스업(제조업, 1차 산업, 에너지업)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의 유보 작성, △한국...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 △터키...농어업, 광업, 부동산 등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권한 확보
- (발효 전망) 발효 후 10년간 GDP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 약 0.6억 달러 증가 예상*, 특히 건설 서비스 및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 기대
 -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경제적 영향 평가 결과(2014.11., 산업연구원)
- 자료 : 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투데이·조선비즈·파이낸셜뉴스(2015.2.27.)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터키 경제협력 관계의 새로운 도약 - 양국 통상 장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서명 실시 -」(2015.2.26.)

㉔ 농정이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복지·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주력

- **['농해수위원회가 말하는 2015년' 관련 인터뷰 결과]** '농촌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전망
 - ※ 2015년 농해수위원 19명 중 14명 참여, 올해 주력 사안을 비롯해, FTA 피해대책 및 쌀산업 발전대책 등에 대해 인터뷰
- **(농촌복지)** 농촌독거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농촌지역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및 기초생활보장제 수혜 대상 확대 등
- **(FTA 무역이득공유제 제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 실질적인 피해보완대책 마련 시급
- **(513% 쌀 관세율 관철)** 모든 농업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세율 설정 관철, 쌀이 갖고 있는 상징성 중요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5.2.24.)

□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2.23.~3.20., NH농협손해보험] 과수 5종** (사과, 배, 감귤, 단감, 뽕온감)** 및 시설작물 17종(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상추 등)
 - ※ 한해 농사의 시작인 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부터 태풍, 집중호우, 가을 동상해 및 나무 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
 - ※※ 2014년 거대 자연재해가 없었음에도 특정 5종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1,292억 원, 전체 지급액 1,420억 원(34개 품목)의 **91% 점유**
 -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 **(필요성)**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 타 작물에 비해 피해가 큰 과수 농가의 안전한 경영을 위해서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자료 : 매일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헤럴드경제(2015.2.24.) / 한국농어민신문(2015.2.27.) / 농촌여성신문(2015.3.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주요 과수 5개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2월 23일부터 판매, '14년 농작물재해보험금(1,420억 원)의 91%(1,292억 원)를 과수농가가 받아 -」(2015.2.23.)

□ 두부 중소기업적합업종 적용 예외 결정

-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국산콩 사용한 두부 중소기업적합업종 적용 예외 결정·발표, 2.24.]** 떡국떡 및 떡볶이 떡 등 5개 품목 신규 품목 지정, 두부 포함해 49개 품목 재지정

㉔ 농정이슈

- **(반응)** △농업계(농협·생산자 등)···요구한 의견 수용한 결과로 긍정적
△대기업···국산콩 두부 생산에 제약 받지 않아
- **(정부, 국산콩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 대·중소기업 콩 가공업체와 농협, aT,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국산콩 생산자단체 등 TF 만들 계획

자료 : 국민일보세계일보한겨레(2015.2.25.) / 농민신문NEWSis아주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2.27.)

참고 :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_「적합업종 재합의(51개) 및 신규(5개) 합의권고 / MRO 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확대 -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2015.2.24.), 농식품부 보도자료_「두부 가공업체 국산콩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어 - 국산콩 수요확대 계기로 삼아 다양한 수요대책 모색 -」(2015.2.26.)

□ 식약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추가 설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속검사체계 구축]** 잔류농약 초과 등의 유해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위해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 검사소*** **(현재) 12 → 16개소 확대 운영**
 - ※ 도매시장 등 반입 농수산물품을 주·야간 현장에서 신속 수거검사(4~6시간)하여 부적합 유해 농수산물품을 즉시 폐기조치 등 유통·판매 차단 역할하며, 올해 4곳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인천 구월, 대전 오정, 충남 천안, 경북 안동) 추가 설치 예정
- **(현장 검사소 2014년 실적)** 유통농수산물 수거검사 총 54,000여건 중 44,000여건 (81%)이 이루어졌으며, 부적합 농수산물 27톤 가량 현장 폐기 조치

자료 : KBS·SBS(2015.2.25.) / NEWSis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2.26.)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_「유해 농수산물 유통 전 차단 강화 - 공영 도매시장에 신속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유해 농수산물 차단 -」(2015.2.25.)

□ 2015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52개소 선정

- **[2015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총 52개소(공동생활홈 28개소, 공동급식시설 18, 작은목욕탕 6)**,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우울증 외로움 완화 기대
- **(향후 계획)** 상반기 중 세부설계 등 완료하여 올해 시설 준공 완료, 2차 공모 통해 일부 시설 추가 선정*
 - ※ 추가 선정 계획: 공동생활홈 7개소, 공동급식시설 2, 작은목욕탕 10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2.27.) / 농촌여성신문(2015.3.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공동시설 지원으로 함께해서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듭니다 - 공동생활홈(28개소), 공동급식시설(18), 작은 목욕탕(6) 선정」(2015.2.25.)

농정이슈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 지속

- [산림자원 확보 위한 해외영토 확대 지속] 산림청, 2014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솔로몬제도, 뉴질랜드,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8개국에 4만 3,182ha 조림, 전년(2013년)대비 약 23%↑(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해당), 산림자원 안정적 공급 기대

* overseas forest development: 한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에서 산림자원(산업용 목재, 바이오에너지 원료 등)을 개발하는 것

자료 : NEWSis머니투데이·서울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2.25.) / 농수축산신문(2015.2.27.)

헝가리산 가금류 수입금지

- [농식품부, 헝가리산 가금류(닭오리 등) 및 산란 가금제품(닭고기, 오리고기 등) 수입금지, 2.25.] 헝가리 고병원성 AI(H5N8형) 확진(2.24.),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 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산란 가금육* 등

* HPAI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 이내에 도축·가공된 제품으로서 열처리 (70℃ 30분 이상)되지 않은 것

자료 : KBS·YTN(2015.2.25.) / 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2.26.) / 농민신문(2015.2.27.)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헝가리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2015.2.25.)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한·중 FTA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2015.2.26.)

한·중 FTA 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가서명, 2.25.] 의의...△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도시화 관련 산업, 문화, 유통 등),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기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등

한·중 FTA 현황 및 협상결과 (농업)

한·중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양허단계	한국				중국			
	품목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223	9.96%	327	9.2%	283	19.3%	25	4.0%
(무관세)	102	4.6%	246	6.9%	121	8.3%	16	2.6%
(유관세)	121	5.4%	80	2.3%	162	11.1%	9	1.4%
5년	303	13.5%	16	0.5%	79	5.4%	5	0.8%
10년	176	7.9%	278	7.9%	661	45.1%	85	13.7%
(10년 내)	702	31.3%	621	17.5%	1,023	69.8%	115	18.5%
15년	428	19.1%	103	2.9%	232	15.8%	74	11.9%
20년	439	19.6%	612	17.3%	105	7.2%	158	25.4%
20A	2	0.1%	28	0.8%				
20B	1	0.04%	57	1.6%				
(20년 내)	1,572	70.2%	1,420	40.0%	1,360	92.8%	347	55.8%
부분감축	35	1.6%	492	13.9%	1	0.1%	19	3.1%
현행관세 +TRQ	21	0.9%	569	16.0%				
협정배제	16	0.7%	77	2.2%				
양허제외	596	26.6%	989	27.9%	104	7.1%	256	41.1%
합계	2,240	100%	3,547	100%	1,465	100%	621	100%

주: 품목수는 HS 2012 기준(우리 10단위, 중국 8단위), 수입액은 '12년 대상대국 수입액 기준

20A: 10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1년차부터 10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차에 무세

20B: 12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3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차에 무세

㉔ 정책브리핑

<현황>

- **[관세]** 2012년 기준 한국 농산물 56.7%, 중국의 평균 관세율 15%에 비해 높은 수준
- **[교역]** 중국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의 15.5%(47억 달러) 차지하는 주요 농산물 교역국으로서 한국은 2013년 약 38억 달러 적자 기록
 - ※ 농산물 대중 무역수지(백만 달러): (2011) △3,084 → (2012) △3,307 → (2013) △3,767
- **(주요 수입품)** 채소류, 박류, 곡류, 채유종실, 기타 농산가공품 등
- **(주요 수출품)** 당류(당, 시럽 등), 낙농품(크림, 치즈 등), 음료, 커피류, 기타 농산가공품(유자, 향미용조제품 등) 등

<협상결과>

-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 품목 양허제외*
 - ※ 쌀(협정대상 제외),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등),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등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
- **(시장개방 충격 최소화)** 일부 품목에 한정된 TRQ 제공 및 관세 소폭 감축 등의 보호장치 활용
- **[고품질·안전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확보]** 중국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
 - 한국 30대 주력 수출품목(전체 수출액의 93%) 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
 - ※ 커피조제품, 비스킷, 음료, 인스턴트 면 등 관세철폐 기대
- **[SPS(위생·검역)분야]** 농업계의 우려 감안,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
 - ※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농업)

- **[정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관계부처 합동 발표, 2.25.]** 가서명(2.25.)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체적인 재정계획 수립까지 신속히 마무리, **한중 FTA 비준과 경제적 효과의 조기 가시화** 차질 없이 추진
-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 한중 FTA 계기로 첨단농업 육성, 규제완화, 수출 유통·판로 지원 확대 등 농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㉔ 정책브리핑

- **[농업 경쟁력 강화]** 고품질·안전성 등 강점 활용, 고비용 생산구조·고령화 등 약점 보완하여 우리 농업의 전체 수준을 업그레이드
 - **(고품질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주산지 중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 ICT 융복합형 창조 농업 육성 및 R&D 강화
 - **(6차 산업 고도화)** 일자리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존의 6차 산업 지구를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육성
 - **(농가 경영 안심장치 강화*)** 보험제도 확대 검토 등을 통한 농가 경영 및 생활 안정 도모
 - ※ 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 범위 확대, 수입(소득)보장보험 신규 도입 등 검토
 - **(국산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 농업과 식품·외식 산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산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참고자료>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쌀 관세화, 한중 FTA 협상 등 개방 확대의 위기를 딛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도약**
 - **(주요과제 1*)** 농업의 6차산업화 통해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농업·농촌의 대응력 제고
 - ※ 6차산업경영체 육성, 로컬푸드 등 신유통 확산, 농촌관광 활성화
 - **(주요과제 2*)** 맞춤형 농정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전략 통해 **전업농·중소농 등을 첨단화·규모화**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제고,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
 - ※ ICT 융복합 통한 시설원에 및 축사시설 첨단화(스마트팜), 공동영농 방식의 논 들녘경영체 육성
 - ※ 실습 중심으로 농·농고 교육과정 개편, ICT 등 첨단 기술교육 강화, 농업분야 벤처 창업지원 등
 - ※ 해외시장별 농수산물 수출 특화전략 지원, 검역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농수산물 특화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지원 등
 - **(주요과제 3*) '행복한 농촌만들기'** 통해 귀농·귀촌 등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 유입 가속화, 영세고령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 읍·면을 농촌 경제·문화·공동체 활동의 중심으로 육성, 체험형 복지 인프라(농촌형 복지모델, 행복버스 등) 확대 등

연구지원 2014년 축종별 등급판정 통계분석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2.25.)

□ 개요

-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 2014년 축종별 등급판정 발표, 2.25.] 소 1,041천 두, 돼지 15,662천 두, 닭고기 87,052천 수, 계란 927,874천 개, 오리고기 6,634천 수

□ 주요 내용

- [소] 1,041,576두, 전년대비 2.6%↓, 2년 연속 100만 두 이상 등급판정
 - ※ 판정두수 추이: (2011) 850 → (2012) 968 → (2013) 1,069 → (2014) 1,042천 두
 - (품종별) 한우 920,944두(전년대비 4%↓), 육우 66,758두(전년대비 4.1%↑), 젖소 53,874두(전년대비 18.2%↑)
 - (한우 전체 1+등급 이상 출현율) 32.3%, 전년대비 2.1%P↑
- [돼지] 15,661,784두, 전년대비 2.8%↓
 - ※ 판정두수 추이: (2011) 10,819 → (2012) 14,018 → (2013) 16,108 → (2014) 15,662천 두
 - (돼지탕박 평균 도체중량) 87.7kg, 전년대비 0.3kg↑
 - (육질등급 출현율) 1+등급 25.8%, 1등급 35.7%, 2등급 32.2%
- [닭고기] 87,052,017수, 전년대비 11.9%↑
 - ※ 판정수수 추이: (2011) 52,547 → (2012) 66,339 → (2013) 77,766 → (2014) 87,052천 수
- [계란] 927,874,385개, 전년대비 8.1%↑, 식용란 생산대비 6.8% 등급판정
 - ※ 판정개수 추이: (2011) 588,119 → (2012) 713,025 → (2013) 858,048 → (2014) 927,874개
 - ※ 식용란 생산대비 판정율 추이: (2011) 4.3 → (2012) 5.2 → (2013) 6.3 → (2014) 6.8%
- [오리고기] 6,634,175수, 전년대비 8.5%↑
 - ※ 판정수수 추이: (2012) 2,650 → (2013) 6,116 → (2014) 6,634천 수
 - ※ 도계수수 대비 판정율 추이: (2012) 2.9 → (2013) 7.2 → (2014) 13%
- [말] 806두, 전년(333두)대비 142%↑

현장여론 겨울철 영농교육 실태와 개선점

자료: KRE리포터를 대상으로 장의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KRE리포터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2. 1. ~ 2. 28. (총 21건)
- 수집대상: KRE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겨울철 영농교육 실태와 개선점

- 농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영농교육을 실시함. 해마다 같은 강사내용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방식을 개선해 **농업현장에 실용화할 수 있는 중요품목 및 기술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주길 바람.<남진하, 강원 정선 외 1>
- 주로 생산기술에 관한 교육이 많은데 요즘 농산물이 과잉생산으로 골머리 앓는 현실에서 **생산교육보다는 수출장려, 소비 홍보 등에 초점 맞춰 교육내용을 개선**해 주길 바람.<김용덕, 경기 남양주>
- **수도, 축산, 원예, 과수 등 품목별로 실시**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도록 하고 성공사례 발표, 묻고 답하기, 농기계 교육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람.<최영호, 충남 부여 외 1>
- 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 년에 3~4차례 식량작물,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마케팅과 품목별 교육이 적절히 병행**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최시훈, 부산 기장>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목 위주 영농교육**을 실시해 주길 바람.<나종주, 전남 화순>
- 농업인이 장단기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교육생의 필요에 따라 또는 이동불편 개선을 위해 **사이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마을회관, 작목반별로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임충빈, 경기 안성>

KRE리포터 현장여론

- 교육의 중점적인 내용이 대부분 **전년도 돈이 많이 되었다는 인기품목에만 치중**되어 그 해는 너도나도 인기품목의 농사를 지으니 과잉생산,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품목위주의 교육도 좋지만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정해 개선**해 나가길 바람.<변해동, 강원 홍성>
-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농업인의 교육열정이 대단한데 비해 교육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아쉬움. 또한 AI-구제역으로 영농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교재를 우편 배부하거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공유**해 주길 바람.<유영순, 충남 서산 외 1>
- 영농교육은 해당 작물이 심어진 농번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병충해 입은 작물과 고품질 작물을 비교하고 병충해 예방법, 비료의 시비방법, 선별, 포장 등 실제 필요한 영농법인 **‘진짜 농사교육’**으로 **개선**하고, 여기에 학술적 교육이 보태지면 아무리 바쁜 철에 교육한다 해도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것이라고 봄.<변해동, 강원 홍천>
- 교육 전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의 인사말 시간만도 한 시간을 낭비하는 듯 하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농업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는 교육이라 실제 농업에 주는 효과는 미비함. 농업교육은 수십 년 **농업에 종사하고 직접 배운 농업인이 강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박현근, 강원 횡성>
- 겨울철에만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교육 상담실을 운영해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연중 실시**하면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때마다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함.<김천식, 경기 파주 외 1>
- **영농교육은 1~2월 시기에 이루어져야** 바쁜 농번기를 피하고 새해에 실시되는 농업정책에 대한 숙지 등 도움이 될 것임.<정소정, 제주 제주>
- 고령 농업인이 많아 거리가 멀면 원하던 교육에도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교통 불편, 고령 농업인 등 농촌 상황을 고려해 마을회관에서 소규모로 실시**한다면 참석률이 더 좋아질 것임.<김중근, 전남 순천 외 1>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